

社說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언제나 바른뉴스'를 제작, 공급하겠다는 포천신문의 의지가 드디어 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위원 300명 이내로 구성기로 하고 지난 7일 70여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 발족식에 많은 위원들이 참석했다.

조사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전국최고의 지역정문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사를 취재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미담을 제보하는 등 포천신문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봉사하고 동시에 위원회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위원회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문, 감사 등으로 구성하고 각 읍면동별 지부장체제로 구성했다. 읍면동 지부장은 읍면동지역의 조사위원 대표로서 지역위원들의 친목도모는 물론 기사제보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같은 조직구성은 보다 실질적인 조사와 취재가 포천시 전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위촉받은 조사위원들은 주로 중소기업체 대표나 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조사위원 상호간 정보교환, 친목도모는 포천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천신문은 2001년도에 포천신문이 정문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현재 37명의 자문위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2002년도에는 포천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3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학생들에게 40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시각에서 뉴스를 제작, 보도하고 있다. 2004년에 들어서는 주부들에게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주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포천사회를 스케치하고 보다 실질적인 뉴스제공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조사위원회를 70여명으로 발족하여 포천 곳곳에서 생생한 뉴스를 보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시민여론을 담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학생들에게 50여명으로 구성된 주부들에게 50여명으로 구성된 주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포천사회를 스케치하고 보다 실질적인 뉴스제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사위원회 발족으로 포천시 지역여건상 방대한 지역의 뉴스를 보다 쉽게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자의 시각이 아닌 현장의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와 기자단의 자발적인 노력과 본사 차원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임무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본연의 사람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윤리강령 제3조를 항상 기억하여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포천신문 조사위원은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제보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사위원은 개인 명예와 특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몰드는 것을 배격하여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우호교류 통한 기업유치 희망”

중국 래무성 방문단 포천 방문



중국 산둥성 래무시 방문단이 지난 5일과 6일 포천시를 방문,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했다.

한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우호교류를 위해 포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山東省) 래무시(萊蕪市) 방문단 역시 한국 기업단지 유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기업유치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필옥혜(畢玉惠) 부시장, 강송지(康頌池) 대외무역경제협작국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래무시 방문단은 6일 포천시청을 방문해 박윤국 시장, 최대중 의장 등을 접견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했다.

이날 박 시장은 “래무시 방문단을 환영하며 이익보다는 신뢰를 우선시하는 발전적인 교류관계를 맺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 부시장은 래무시의 주요 3대 산업 등을 설명한 후 “한국기업에 우대하기 위해 한국기업전용담양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포천시와 형제같은 우위를 통한 활발한 교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 방문단은 대전대학교와 국립수목원, 화천면 주민자치센터 등을 둘러본 뒤, 포천시가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이철우국회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오는 17일 선고 공판예정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포천·연천) 의원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지난 3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 이의원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일부 증인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증인들의 진술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17대 대선 당시 20-30대에 투표를 독려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을 뿐 상대후보를

비방 또는 비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17대 총선거기간인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 택시정류장 앞에서 있었던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후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상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병갑기자 jpk61@hanmir.com

광릉숲 고사목 위령제 지내

수령150년의 노거수 30분만에 베어져



고사목 위령제가 치러진 후 대형크레인과 몇 명의 인부들에 의해 수령 150년 된 전나무가 베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포천시 소흘읍 산립청 국립수목원(원장 김형광) 정문에서 ‘광릉숲 회생기원을 위한 고사목 위령제’가 열렸다.

이는 최근 광릉숲을 관통하는

86호선에 하루 6천여대의 차량 통행으로 생태 악화 등 고사되는 숲을 위로하고자 개최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산림청 관계자, 인근 직봉리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이 30m, 직경 1m, 수령 150년의 노거수의 넋을 달렸다.

행사참석자들에게 위령제를 시 작으로, 분향강신(焚香降神),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망요례(望燭禮), 음복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고사목 위령제’에서는 소외고객 지원을 위한 현장 순회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고객 지원을 위한 ‘빛 한줄기 나눔기금’ 모금활동 전개, 서비스개선 아이디어 인터넷 공모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실시된다.

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고객을 방문해 누전차단기 등의 육내배선을 점검해 주고, 노후된 조명기구나 전선 등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정도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빛 한줄기 나눔기금’ 모금활동도 펼친다. 자체모금액은 단전고객을 직접 지원하고, 인터넷 모금액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금으로 기탁 후 대상고객을 지원

했다.

국립수목원 김형광 원장은 향불을 피워 신을 부르는 분향강신(焚香降神)에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꽃이 버티온 나무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시들시들 잃게 했다”며 “위령제를 통해 광릉 숲이 활력을 되찾아 건강한 숲으로 회생하기를 기원한다”며 축문을 태워 하느님께 알렸다.

이후 수목원관계자들이 광릉숲 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오방신(五方神)에게 쌀과 조·팥·검은콩 등의 곡식을 고사한 전나무 주변에 뿌리며 무사히 별세가 이뤄지길 기원했다.

마지막 순서로 김원장이 나라님의 명령 때문에 벌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알리는 ‘어명이오’라는 의침과 함께 세번의 도끼질을 했다. 이어 기증기와 전기톱을 동원한 작업인부들에 의해 수령 150년 전나무가 30여분만에 베어졌다.

수목원 김희재박사는 “수령 100년 이상된 노거수 11그루를 제거하는 한편 내년까지 전나무 어린 묘목을 심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의원칼럼

PO형 안녕하십니까?



오병익 경기도의회의원

요즘 우리 모두 어려운 시절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이다 아니다 천도다 하는 논란에서부터 지금의 경제상황이 위기 상황이다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소모적인 논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시민들의 삶에

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우리는 절망할 뿐입니다.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철저히 서울의 방패막이 역할만을 담당했던 PO형!

개발독재시대에는 안보논리로, 이후 참여정부, 국민들의 정부에서는 각종규제로, 갖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향을 지켜오신 우리 PO형!

당신의 마음은 고향을 뜻 곳이 지지고 있다는 자부심보다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우시리라 사려됩니다.

국회, 대법원을 포함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50조원이 넘는게는 100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수도를 옮길 이유가 있기는 있는 건가요? 그 돈의 0.1%라도 PO형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었나요? 소실 토정비결을 읽어 보셨나요?

물류의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던 당시 포천은 가장 척박한 고장중의 하나로, 포천 현장은 가장 하기 어려운 자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 우리 후손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 지역 어느 곳을 가 봐도 경제적 활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 상황이 우리 PO형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깊은 소외감은 어려움을 모르고 항상 권력의 양지에서 삶을 편하게만 살아온 이 땅의 위정자들이 알 길이 없겠지요.

PO형! 힘내세요! 그대도 우리는 이곳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이곳에서 교육시켜 이 나라의 동량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다음이라는 약자의 논리보다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적극적 사고와 행동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지요.

위정자들은 지금 경제가 위기다 아니냐라는 소모적 논쟁을 일삼고,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현재도 아니고 과거사를 들추어 서로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이 때문에, 나 빠진 서민 경제를 인연 탓으로 돌리는 정치가들이 득세하는 이 나라에서!

도교육위원회 하반기 의장단 출범

신임 의장에 조용호 전 부의장 선출



조용호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147회 임시회를 개최해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신임 의장에 5선거구(고양, 김포, 파주) 출신인 조용호 제4대 경기

도교육위원회 전반기 부의장을, 부의장에는 4선거구(성남,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출신인 전영수 위원을 선출되었다.

신임 조용호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앞으로 최대 현안인 교육 자치를 수호하고, 교육위원회 위상정립에 주안점을 두어 소임을 다하겠으며, 집행부와의 경제와 조화 속에 교육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조용호 의장은 파주읍장, 파주군의회 초대위원, 제2대·제3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경기방문의 해’, 정부지원사업으로 확정

「2005 경기방문의 해」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핵심지원 사업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김형태)는 「2005 경기방문의 해」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2005 지역방문의 해'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05년 지역방문의 해」 사업 신청 지역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주도가 막판까지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공사는 「2005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 관광객 69백만명 유치, 부가가치 3조 4천911억원 창출 등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과 수준 높은 관광인프라 확충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방문의 해 행사를 통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로도 관광 파급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국민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지역단위로 방문의 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05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과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국내외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韓電,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고객사랑 캠페인 전개

한전경기북부지사(지사장 정연수)가 그동안 고객의 사랑에 더 큰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주제로 ‘고객사랑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고객사랑 캠페인’에서는 소외고객 지원을 위한 현장 순회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고객 지원을 위한 ‘빛 한줄기 나눔기금’ 모금활동 전개, 서비스개선 아이디어 인터넷 공모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실시된다.

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고객을 방문해 누전차단기 등의 육내배선을 점검해 주고, 노후된 조명기구나 전선 등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정도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빛 한줄기 나눔기금’ 모금활동도 펼친다. 자체모금액은 단전고객을 직접 지원하고, 인터넷 모금액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금으로 기탁 후 대상고객을 지원

했다.

이밖에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우수 아이디어 제공 고객에게는 1만원~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앞으로도 한전은 지속적인 고객사랑 캠페인 전개 및 고객편의 위주의 제도와 서비스 개선 등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전력회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한전경기북부지사 고객지원과장 이강철(031-849-2253), 대리 최희모(031-849-2304)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정치활동 동향



이철우 국회의원은 1일 포천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포천시 새마을지도자추진대회에 개회식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표창하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당부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8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자원봉사대 발대식 및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친절한 자세와 경기매너로 봉사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중 포천시의회회장은 2일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대전테크노파크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정관과 사업계획, 예산 등을 심의하고 앞으로 대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 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호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4일 영종면 백로주유원지에서 개최된 포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투철한 봉사를 치하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당부했다.



오병익 경기도 의회의원은 2일 대전테크노파크 창립총회에 참석해 경기북부의 취약한 산업기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신기술 개발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로 육성할 방침 등을 토의했다.



이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6일 이동면 장암리 이동중학교 체육관(백운관) 개관식에 참석해 백운관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포천시의회 의원은 3일과 4일 실시된 포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에서 의원들과 영북하수종말처리장, 선단동사무소부지 등을 둘러보고 현황설명을 보고 받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대선 포천시의회 의원은 8일 오전 11시부터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동동사무소에서 개최된 목요일(왕방회)에서 관내 각 기관, 시정 및 의정 등의 홍보활동을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갖았다.



강대선 포천시의회 의원은 7일 영종농협 회관에서 개최된 서울 상계백병원과 영종농협간 농촌사랑 자매결연식에 이번 행사가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도 기여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ublica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subscription rates and contact details.